201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고사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를 지나면서, 어느덧 생동하는 새봄의 기운이 자양의 언덕에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시기에 존경하는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님과 우송 가족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사회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열성을 다해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늘의 이 영광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주신 학부모님들의 크고 넓으신 노고에 감사와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의 학위수여자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부단히 학업에 정진하여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떳떳이 이겨낸 고난은 최대의 영광'이라는 경구처럼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히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들이야 말로 최대의 영광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졸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큰 이유는 변화하는 대자연의 흐름에 맞추어 진화해 나가면서 문명을 창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만 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광의 기쁨보다는 진지하게 고뇌하고 과단하게 실천해야 하는 힘든 출발점에 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송인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비록 어렵다하더라도 항상 우송인이라는 자긍심과 강인한 도전정신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송정보대학은 지난해에 개교 50주년을 넘겼습니다. 우리의 슬로건인 '나를 위한 50년 우정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50년 동안 우송을 거쳐나간 선배 동문들이 여러 방면에서 큰 몫을 다하고 있으며, 우송은 이미 '특성화대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우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대학다운 대학 -

이른바 실용교육의 명품대학'으로 재도약하여야 합니다. 우송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우송인의 자긍심을 갖고 매일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쌓는 정성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의 주역이 될 우송인 여러분!
그리고 지식정보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우리 자신도 매일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높은 꿈과 이상을 갖고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을 냉철이 자각하면서도 현실을 극복하는 자만이 이상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아시아에서 지구촌으로까지 넓혀서 자신이 개척할 길을 찾아내고, 이에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야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송인' 즉 소나무처럼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항상 늘 푸른 기상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야합니다. 세계의 주역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평생학습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송인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인간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형제 사이에서는 양보와 사랑을, 친구들 간에는 우정과 협동을, 이웃을 위해서는 봉사와 배려를, 그리고 교수님이나 교직원에 대해서는 겸손과 존경을, 또한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정직, 근면,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꼭 섬기고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이며 덕목입니다. 인류사회란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사랑하고 이끌어 줄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고 문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변해서는 안 되는 기본 도리를 내가 먼저 실천하여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참다운 지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지만, 우송정보대학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송의 세계는 더욱 넓게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위수여자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랑스러운 우송인으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우송 가족 모두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항상 댁내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0일
우송정보대학 총장 김 선종